

새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시민친화 문화·치유 공간으로

설계 공모 '소통의 풍경·문화적 상상체' 선정... 전시 기간의 시민 쉽터 1182억 투입 2027년 완공... 전시 플랫폼·상영관·레스토랑 등 구성

광주시가 새롭게 조성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대규모 전시 기능과 함께 시민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 기능도 담아 내기로 해 지역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토문건축사사무소(대표사)·㈜운생동건축사사무소·㈜리가온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응모한 작품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를 선정했다.

대학교수·건축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열어 입선작 5개 작품을 선정한 데 이어 30일 최종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확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응모작품의 비엔날레 상징성, 전시공간의 효율적 구성, 대지 활용도, 건축물의 랜드마크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당선작으로 선정했으며, 나머지 4개 작품은 입선작에 이름을 올렸다.

당선작에는 용역비 51억원 상당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에 대한 우선협상권이 부여되며, 입선작 4개 작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해당 공모작은 오는 8월까지 시정 1층 시민숲에서 전시한다.

당선작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국제적 위상과 광주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적 상상체를 제시하고,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문화적 네트워크로서의 열린 문화 융합 전시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하에는 전시작품 설치와 철거 효율성, 관람 동선의 쾌적성, 현대 작품의 다양한 크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변성을 지닌 기획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상 1층에는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아트카페, 학습공간, 교육공간, 다목적상영관, 로비를 배치해 전시가 없을 때에도 시민이 찾는 열린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지상 2층은 운영사무실과 열린광장을, 지상 3층은 자료실과 학예연구실, 지상 4층에는 상설전시관을 배치했다.

지붕층은 상설전시실과 연계된 옥상정원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비엔날레 전시가 열리는 행사 기간에는 대규모 작품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시민의 휴식, 만남, 소통, 이벤트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이번 국제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계약을 체결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설계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공간 구성과 외부 디자인 등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024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7년에 새로운 비엔날레 전시관이 건립되면 광주비엔날레의 위상과 정체성을 강화되고 안정적인이고 효율적인 행사 개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새 전시관은 현 비



(주)토문건축사사무소(대표사)·(주)운생동건축사사무소·(주)리가온건축사사무소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에 공동 응모해 당선된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

엔날레 주차장 부지인 북구 매곡동 3만4925㎡에 총 ㎡, 주차 면적 95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비 1182억원을 투입해 전시관 연면적 2만2776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그린카진흥원, 완성차 전자파 국제평가기관 지정

전기차 안전 관련 104개국 공신력 확보... '미래차 선도도시' 성큼

광주시가 국내 유일의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관련 인증센터 가운데 이어 전기차 등의 전자파 유해성을 측정하는 전자기적합성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미래차 선도도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다.

광주시는 3일 '출연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이 국가기술표준인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완성차 전자기적합성(전자파 유해간섭 환경)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국내 유일 '친환경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개소에 이어 '미래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성과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전자기적합성 평가는 전기·전자기기 또는 시스템이 전자파에 의해 어떤 영향을 주고 받고, 환경에 유해한 간섭 방해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측정하는 게 핵심 기능이다.

광주시는 전기 자동차가 증가하고 자율주행 차량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공인은 완성차 주행, 충전 중 안정성과 관련해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세계 104개국으로부터 공신력을 확보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주그린카진흥원의 친환경자동차 전자기적합성 시험실은 전장 20m 굴절버스 시험이 가능한 실험실(챔버)을 갖추고 있다.

또 세계 최초로 전자파 발생 수신장치를 세 방향으로 상부에 매달아 조정할 수 있으며, 바닥에는

노면과 동일한 주행 모의시험 설비를 보유해 차량의 자율주행 센서 동작과 전자기적합성 시험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이번 지정에 따라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인증을 진행했던 지역 완성차, 부품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차 기업의 개발기간 단축,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지정으로 광주는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의 필수조건인 자동차 개발 단계부터 완성차와 해당 부품까지 전 영역에서 전자기적합성 분야의 신뢰성을 확보·지원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자치단체가 됐다"면서 "특히 최근 개소한 국내 유일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에 이어 미래차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핵심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순천·광양에 712억 투자 유치

항공우주산업 등 4개 기업...160여 명 일자리 창출 기대

전남도가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광양시와 협력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시아티엔씨 주식회사, 케이스틸㈜, 거인이에씨 주식회사와 712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순천과 광양에 162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순천 울촌제1산업단지에 508억원을 투자해 민간 우주산업 기반시설(인프라) 조성을 위한 발사체 생산 시설 중 하나인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1, 2, 3단 조

립을 수행할 공장을 신설한다.

아시아티엔씨 주식회사는 순천 해룡산업단지에 90억 원을 투자해 금속용기,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제조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케이스틸㈜는 광양 황금산업단지에 59억원을 투자해 배관 작업과 기계 설치를 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시설 등을 신설한다.

거인이에씨 주식회사도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에 55억원을 투자해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겨울에도 '씽씽'

내년 3월까지 주행 프로그램 운영...전국서 2700여명 참가

전남도는 모터스포츠 비수기인 겨울철 선수 및 일반인이 서킷을 주행할 수 있는 국제자동차경주장 동계시즌 스포츠주행 프로그램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주 운영한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1월 평균 서킷 노면 온도 2.4도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동계 주행 훈련의 최적지다. 매년 평균 50여 일간 연인원 2500여 명이 영암 서킷을 방문해 모터스포츠 저변 인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3주간에 걸쳐 연인원 27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자의 90% 이상이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경주장

을 방문해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화~목요일 F1코스를 주행하는 선수와 동호인의 단체입대가 진행된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서킷 라이선스를 소지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주권 및 1일권으로 판매될 계획이다.

상설서킷 1바퀴(랩타임)를 주행하는 시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1회 20분, 하루 최대 100분(5회) 주행이 가능하다. 1일권은 판매 수량 600매 중 할인된 금액으로 사전 판매한 100매가 완판되는 등 동계주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만족도 조사

광주시·여성재단, 15일까지 23개 항목 온라인 설문

광주시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5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설문은 올해 초 전면 개편해 운영하고 있는 '광주아이키움 플랫폼'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오픈한 빠른(퀵)메뉴 '우리동네아이돌봄'의 이용 만족도를 포함한 접근 편의성, 정보

의 유익함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문답 형식의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플랫폼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오는 15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공지사항'에서 설문조사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면 된다.

만족도 조사 참가자 중 15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고, 당첨자는 20일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광주시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조사결과를 분석해 광주시의 임신·출산·육아정책 서비스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순희 광주여성가족과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남부대학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사랑의열매